



### \*태국 미등록 사이폰(SAIPON) 산모 상담 및 지원

태국 통역 일을 하고 있고 이웃에서 마트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닛타야를 통해 소개받고 상담 했던 미등록(불법체류) 산모 사이폰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뱃속 아기 아빠와 함께 찾아왔을 때는 출산을 2주 정도 앞둔 상태였습니다. 몸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배도 많이 나와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한강신도시 상가지역에 있는 산부인과를 그동안 6개월 이상 다녔던군요. 출산을 앞두고 출산 비용을 병원에 문의했더니, 사이폰은 태국에서 한번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한 경험이 있던 터라 이번에도 제왕절개 수술을 통한 출산을 권유한 병원에서는 산모가 미등록 상태인 지라 병원비가 최소 6백만원이라 했습니다. 아기나 산모에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는 감당할 길이 없어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요즘은 산부인과 병원이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전에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위해 비교적 저렴하게나 무료로 출산을 돕던 병원들도 이곳 저곳 알아보니 다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고, 이주건강협회나 서울, 인천 등의 국립의료원을 알아봐도 출산은 이제 형편이 어려워 도와야 할 질병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 문제가 되어 국립의료원 등도 산부인과는 아예 진료과목에도 없었습니다. 한참이나 이주민단체 등을 통해 수소문을 해서 수술비가 저렴한 개인병원이라도 알아보았으나 그런 병원은 없었습니다. 낙심해 있던 차에 병원 문의할 때 통화했던 한 산부인과 간호사가 내 목소리가 딱하고 절박해 보였던지 자기네 병원은 안되지만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 이름을 알려주면서 인터넷에서 찾아 전화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전화를 했더니, 상담을 주로 담당한다는 여성 부장님과 통화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이젠 됐다'며 마치 제 일처럼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출산 전에 먼저 와서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하고, 제왕절개 후 4.5일 입원하고도 2백만원 정도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포에서는 꽤 먼 거리였으나 산모와 아기 아빠를 대동하고 수술 예정일 5일 전에 안산으로 달려가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산모는 코로나 음성이 나왔고 아기 아빠될 사람도 지역내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오라는 안내를 받고 수술할 날을 기다렸는데, 수술 이틀 전날 이른 아침에 태국 통역의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산모가 양수가 터지고 피가 비쳐 당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모 집 근처에 있는 택시를 급하게 수소문해서 산모에게 보내고는 다급히 병원 부장님께 알렸더니, 산모만 도착하면 수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다면서 오히려 걱정말라고 안심을 시키더라구요. 천만 다행 안산에 있는 병원까지 택시로 도착한 산모는 바로 수술에 들어가 아기를 무사히 낳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후 아기가 많이 울고 보채기도 해서 수술한 병원에 찾아가 선천성 대사 검사를 해보았는데, 희귀 질환인 갈락토시아 혈증이 의심된다면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이었습니다. 검사 받는 병원을 또 안내했더니 혈증 수치가 걱정되긴 하지만 나아질 수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자 해서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산모와 아기와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기 아빠가 부부싸움할 때 폭력을 쓴다는 말을 통역을 통해 들었는데 걱정입니다. 이 부부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미등록자들이라 돕는 일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딱한 가정을 위해 잘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얀마 난민 가정 35명과 함께한 제주 수련회(10.15-17 2박3일)

3년 전부터 미얀마 난민 가정들이 꼭 가고 싶어 하던 제주수련회가 가을만 되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여 몇 차례나 미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주 수련회 비용 마련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셨고, 저희 수련회가 있을 때마다 영상을 찍어주셨고 또한 난민 다큐를 찍고 있던 제작사 '푸른 영상'에서 비용의 거의 절반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참가자 가족들의 최소한의 회비와 제가 여러 교회들과 지인들을 통해 모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뜻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해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또 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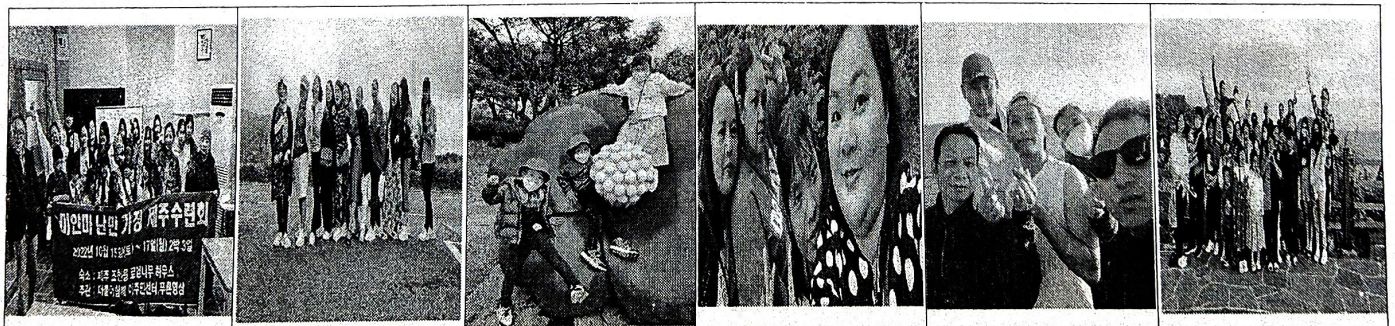


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한번 찢(!!!)하게 체험하였습니다.

3일 중 마지막 날에만 바람이 많이 불어 조금 춥긴 했으나 첫째 둘째날은 완전한 가을 날씨여서 일정대로 이곳저곳 구경하기 너무 좋았고 올레길 7코스(외돌개)와 한경면에 있는 풍력발전소가 설치된 바닷가를 산책할 땐 얼마나 좋아들하던지, 맑고 투명한 가을 햇살과 질푸른 바다가 어우러지며 뿜어내는 빗길과 풍광은 또한 얼마나 멋졌는지. 미얀마 난민 가족들은 모처럼 맛보는 자유와 해방감으로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함께한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과 같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웃고 떠들고 사진도 찍으며 맘껏 누리는 기쁨에 저도 전염되어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보람되고 기뻐는지 모릅니다. 첫날 저녁은 숙소 강당에서 몸으로 가족들끼리 소통하며, 낮에 대화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각자의 느낌과 소감들을 나눴고, 춤추며 어우러졌고, 또한 침묵으로 난민으로 살아온 지난 삶들을 떠올리며 상처나 맺힌 감정들을 풀어내면서 앞날을 새로운 소망으로 세워보는 뜻깊은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둘째날 저녁은 여정의 마지막 밤이기도 해서 어둡해졌으나 야경과 은빛 모래가 유명한 표선해수욕장 모래사장 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큐팀들이 조명과 앰프를 준비해 오신 덕에 근사한 바닷가 무대가 펼쳐졌고, 엄마들로 구성된 '미얀마 전통춤'을 추다보니 그분들 내면에 고이 잠들어 있던 고유한 끼와 영감이 발동되면서 준비된 음악과 함께 바닷가 무대로 모든 사람이 마치 자석이 이끌리듯 나와, 한바탕 춤과 환호성이 난무하는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아, 이 화면을 개봉관 극장에서 다시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지도 모릅니다, 무려 4명이나 되는 다큐 감독님들이 촬영해 주었으니.

첫날 김포공항까지 출발시간 맞춰오느라 적어도 새벽4시부터는 준비했을테고, 첫날 일정대로 관광을 하고 저녁에는 강당에서 프로그램이 밤10시에 끝나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둘째날 아침이 주일이라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리니 원하는 사람만 오라고 광고는 했지만 몇 사람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종교가 다른 가족들 절반 정도가 그 이른 시각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진지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펴차 올랐는지 모릅니다. 미얀마 난민 가정들과 처음 만남을 가진 이후 한 3년간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꽤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더니 제가 주관하는 예배의 자리가 궁금해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주님의 은총의 품 안에서 일상 속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재정적 후원으로 함께 해주셨던 푸른영상과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부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과 지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기도제목

1. 미얀마 난민분들을 위한 예배가 자리잡힐 수 있도록
2. 미얀마 가정들의 주거 안정과 자녀들 교육과 진로 상담이 잘 진행되어 좋은 결실이 있기를
3.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미얀마의 내전이 그치고 민주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미얀마 난민분들이 도움 받는 입장에서 태국에 있는 미얀마 난민촌을 위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2022년 10월 27일

작은이의벗 친구교회◆더불어함께 이주민센터 : 이학산목사

(후원계좌 : 농협 150109-51-140298)